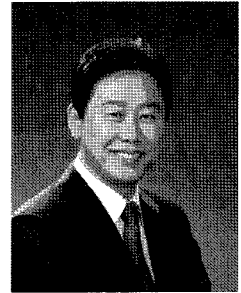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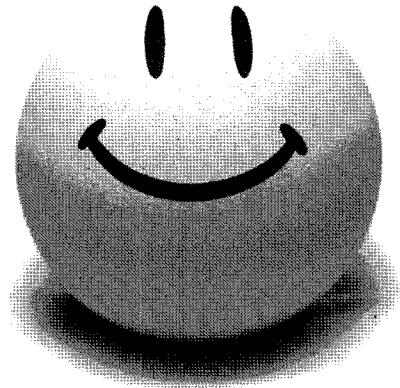
친절한 사람에겐 웃음이 있다!



김 경 호 박사
KIMC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대표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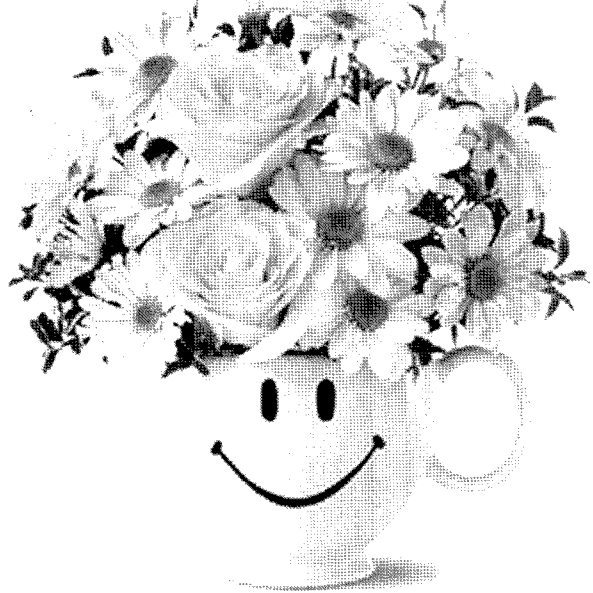
* 친절한 사람이 성공한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흔히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친절한 사람과 불친절한 사람이다. 거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손님이 반말을 하는 경우와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다. 이때 어느 한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일단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이든 결국은 친절한 쪽이 승자가 된다. 그러나 둘 다 그런 꼴로 각을 세우면 결국 양자 모두 상처만 남는 패자가 된다.



현대는 친절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면 성공의 조건을 품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사람끼리 부터 친절해야만 한다. 선진 문화 국민일수록 다른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부터 피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본의아니게 걸어다니는 에어콘이 되어 찬바람만 일으키게 된다. 내부에서부터 친절해야만 밖에서도 자연스런 친절이 나오는 법이다.

우리가 친절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대인관계의 윤택유이기 때문이다. 엔진오일이 없이 달리면 차가 열받는다는 것은 알면서도, 친절이 없는 인간관계가 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생각과 습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친절은 열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끄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친절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한다.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친절함이 배제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친절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불친절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친절은 방법이 아니고 능력(talent)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친절하지 못하면 그 능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친절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틈이 없게 된다. 친절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바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친절은 능력의 옷이다.

그렇다면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기 존중감이 높아야 한다.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말은 자기 사랑이 전제된 상태를 인정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그것은 자기비하이고 조상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자기 존중감은 친절의 원동력이다.

둘째, 저장을 잘 해놓아야 한다. 제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저장한 것 이외의 것은 꺼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친절한 행동은 어디까지나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좋은 이야기나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첫째,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달인이 되려면 연습과 훈련은 필수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나부터 친절운동, 친절훈련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훈련되었으면 좋겠다. 친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 이미 굳어진 상태로 기업에 들어온 성인들에게 갑자기 친절을 요구하니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 밝은 웃음은 친절함의 시작이다.**

대인관계의 홍수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과 만족을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하고 향상시켜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고 바람직하게 연출하는 일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며 목표달성을 앞당기는 조건이 된다. 성공인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이미지가 바로 친절함의 이미지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일이다. 인간관계의 모든 만남은 인사로부터 시작되고 인사로써 마무리 된다. 친절도 마찬가지이다. 어른이 아이를 낳을 것 없이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면 된다. 그리고 밝은 표정이 전제조건이다. 인상 쓰고 다가오는 사람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친절은 쌍방향이기 때문이다. 특히 친절은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한순간에 녹여 버리는 위력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친절하게 거절하는 것이 마지못해 해주는 것보다 낫다”, “친절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 황금사슬이다!” 라는 속담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밝은 웃음이다. 사람들이 왜 웃는가에 대해 많은 학설이 있다. 첫째가 우월론이다. 우월론은 모든 웃음을 사람의 우월감으로 해석한다. 즉, 우월감이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웃음이 일어난다는 학설이다. 웃음의 대상이 되는 개인, 집단, 인종 혹은 다른 여러 범주의 존재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낄 때 웃음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흡스는 웃음이란 패배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승리자가 우월감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영광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둘째는 기대론이다. 기대론 또는 부조화론은 머릿속에 생각하였던 개념과 실제 일어난 실제 사이의 부조화가 웃음을 일으킨다는 학설이다. 당연히 정신적인 것이 기대되었는데 실제로는 육체적인 것이 나타난다면, 가치가 높은 것 또는 숭고하고 위엄 있는 것 대신에 열등하고 비속한 것이 나타났을 때 웃음이 일어난다

는 학설이다. 쇼펜하우어는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웃음에 공통된 요소라고 하면서 웃음이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불합리와 모순이 있음을 지각했을 때 갑자기 터져 나온다고 하였다.



셋째는 사회론이다. 사회론은 사회적 적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이상스런 옷차림,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불균형, 질서와 규칙의 위반, 허식, 위선, 무학, 무능 등이 웃음의 대상이 된다. 베르그송은 웃음거리의 사회적인 이탈현상이고 웃음은 그의 배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가 최대의 탄력성과 최고의 사교성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기피하고 제거하려 하고, 바로 그 부적응 상태가 웃음거리가 되는데, 이 때 웃음은 그에 대한 벌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웃음은 그 원인과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차이가 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표출되는 반사적인 웃음과 내부로부터 조성되어 표출되는 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위환경이나 여건, 정서 상태와 조건, 성공과 성취, 만족과 행복감, 기쁨이나 즐거움, 유머와 재치의 수용 등에 따라서 웃음이 제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도 개개인의 웃음의 정도와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웃음은 개인의 정서와 태도에 기인하고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선택적인 측면도 있다. 사람의 얼굴표정 가운데 가장 호감을 주는 표정은 웃음이다. 그만큼 대인관계에서 웃음의 위력은 지대하다. 밝고 건강한 웃음은 어색한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냉담해진 마음을 녹이기도 한다. 또한 웃음은 격노함을 가라앉히는 효력이 있고 분노를 진정시킨다. 웃음은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 등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심신양용(心身兩用)의 해독제이다. 인간의 웃음은 그 원인과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차이가 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표출되는 반사적인 웃음과 내부로부터 조성되어 표출되는 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위환경이나 여건, 정서 상태와 조건, 성공과 성취, 만족과 행복감, 기쁨이나 즐거움, 유머와 재치의 수용 등에 따라서 웃음이 제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상황과 장소에 어울리지 않은 웃음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웃음의 위력이 강한 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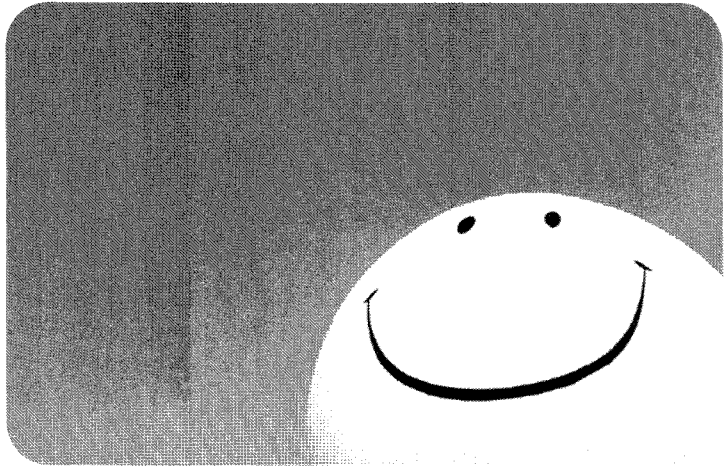
*** 웃음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사람들의 웃는 모습에서 그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인의 웃음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파안대소형, 사교형, 얌전형, 천진형, 부네탈형, 청순가련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파안대소형은 입안이 다 보이도록 시원하고 호탕하게 웃는 웃음으로 사극에 나오는 양반들의 환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웃음이다. 쾌활함과 명랑함이 비취지며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듯한 웃음이나, 때에 따라서 의도적이거나 진실성이 희박한 느낌 등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교형 웃음은 예전의 정치가나 사업가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던 웃음으로 속마음과 상관없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웃음을 말한다. 얼핏 보면 파안대소형처럼 비취질 수도 있으나 감정 표출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며, 실수를 감추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듯한 부정적인 면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얌전형 웃음은 차이가 거의 가려진 채, 입술로만 웃는 웃음으로 조용하면서도 얌전한 느낌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감미롭게 하는 웃음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내숭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천진형 웃음은 차이는 물론 목젓까지 보일 정도로 얼굴 전체로 웃는 웃음으로 웃음소리 역시 크고 명랑한 거침없는 웃음이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상황판단이 안 되는 느낌이나 가벼운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부네탈형 웃음은 잔잔한 모습이 마치 부네탈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 배어나오는 듯한 미소로써 우아함과 기품이 깃들여 있다. 청순가련형 웃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거나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미묘한 웃음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웃음은 웃는 모양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웃음이 모두 호감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웃는 모양에 따라 호감이 가거나 거부감을 연출할 수도 있다. 웃는 모양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눈이 따뜻하게 웃는 웃음이다. 보는 사람에게 다정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고 정겨움을 느끼게 한다.

둘째, 눈빛이 강하거나 웃지 않는 듯한 웃음이다. 이러한 눈빛은 날카롭고 무섭다. 눈빛이 날카로우면 경계심이 생기게 되고, 특히 첫인상에서 오해를 받기 쉽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



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쳐다 본다' 는 이유인데, 그 오해가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구각(양쪽 입끝)이 위로 올라가는 웃음이다. 아무진 인상으로 비취지게 되고 당당하고 호감이 가는 웃음이다. 윗나가 열개 정도 보이는 웃음이 가장 호감이 간다.

넷째, 구각이 아래로 쳐진 웃음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웃거나 부정적인 웃음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다. 마음과 다르게 보여 지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눈이 다정하게 웃고 구각이 위로 향한 웃음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웃음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 첫 번째 표현은 웃음이 아닌 울음이다. 울음을 자기표현이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태어난 후 몇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웃기를 시작한다. 그것도 웃음이 아니라 배냇짓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모양은 웃음에 가깝다. 그러므로 인간의 웃음은 순수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내 · 외부의 자극에 따른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웃음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름다운 웃음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아름다운 웃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얼굴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내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억지로 만들어진 웃음은 보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인 웃음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